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대학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보이십니까?
물론 보이지는 않겠죠. 지금 고1인데, 그렇죠?

이 강의를 보는 대부분 학생들이 고1 정도 될 거고요.
중3 학생도 있을 겁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멀고

힘합니다. 멀고 힘해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멀고 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 길만 가면

됐지만 지금은요. 여러 가지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게 예전에는 문제만 잘 풀면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획도 해야 되고요.

조별 활동도 해야 되고, 같이 친구들끼리 협업 과정도
해야 되고 산출문인 보고서도 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돼요. 여기에 기존에 했었던 시험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나 대학에 나가서 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저희 세대가 배웠었던

문제만 풀던 것들은 솔직히 대학 가면 다 버립니다.
전혀 빠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요. 물론 대학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대학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강은요. 2019 학생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2020과 2021, 2022 대입 과정을

비교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거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2019 학생부

개정안을요.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9 학생부 개정안을 이렇게 한

취지는요. 교육부 자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도
이제 학종이 욕을 먹다 보니까 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재
간소화를 통해서 워낙 학교 간 기재 격차가 크니까,

교사의 격차가 크니까 좀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에서, 외부에서 개입을 할 여지의 것들을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라졌죠.
사라지게 되고 전체적인 분량도 좀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빠지게 된 소논문이라든가
자율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수상 같은 게 사교육이 뭐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내신은 어때요? 수능은 어떻습니까? 더 사교육 많은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조치이기는 한데 뭐 어찌겠어요.
이미 개정은 됐습니다. 개정은 됐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뀐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최적의 전략을 짤 수 있는지만 고민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뀐 거는요. 올해 1학년만 적용이 됩니다.

2, 3학년은 바뀐 게 없어요. 작년엔 했던 것들 그대로
잡니다. 대신에 바뀐 거는 글자수 축소만 적용이 돼요.

물론 봉사, 1학년 같은 경우는 봉사도 빠지거든요.
그런데 2학년은 봉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것들은 지금 1학년, 고1만 해당되는
거고요. 고2, 3 같은 경우는 작년과 바뀐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진로희망입니다.
진로희망 생각보다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진로희망

자체가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저희 잘 안 봐요라는
학교도 있지만 특성 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봅니다.

제가 얘기해봤던 신방과 교수님은요. 저는 진로희망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로희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을 했는데 솔직히 문제가 뭐냐면요.
항목삭제죠. 왜 항목삭제가 됐는지 아세요?

진로희망은 100% 셀프 학생부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써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진로희망은
솔직히 거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써온 대로 써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뻗죠. 뻗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로희망을

안 적는 건 아니에요. 진로희망 항은 아예 빠졌습니다.
빠지고 굳이 쓰고 싶으면 진로 파트 있죠? 창체 이후에

진로 파트에 있는 특기사항에 쓸 수는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입자료에 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대입자료에 활용 안 되는 기록은 기록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렇죠? 기재할 수 있다고는
나오지만 대입자료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학생이 이 진로 파트란에
진로희망을 쓰겠습니까. 실제적인 삭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해야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멋지게 글로 풀어쓰는 그런 고생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로희망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워낙 셀프 학생부라는

욕을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수상경력. 수상경력이

어떻습니까? 학생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의 지표죠. 어떤 대학에서는

교과내신과 교과세특과 더불어 3대 학업역량을 측정하는 어떤 포인트로 수상경력을 씁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과수상이라든가 교과 최우수상이라고 하는 수상경력을 이용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수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학생이 한 학기당 10개를 타도 되고, 20개 타도 됩니다.

문제는 기재는 다 돼요. 되는데 1학기당 1개 수상만 대입자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웃기죠? 학기당

10개의 상을 타더라도 그 해당 학기에 보낼 수 있는 상은 하나만 보내요. 그리고 기존대로

교내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요. 수상경력을 뺀 다른 항목에는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내 대회를

참가해서 쓸 수 있는 파트는 상을 타서 그 상을 적을 수 있는 수상경력란에만 적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1학기당 하나만 대입자료로 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타긴 타니까 하나를 쓸 수 있으니까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입시는요. 여러분 위치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대학입시는 어디 위치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선발하게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걸 평가할 때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평가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애는 1학년 때 영어경시대회 2등을 했고요. 영어작문대회 2등을

했고요. 영어말하기대회 2등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 영어대회에 나가서 1등은 타지 못했지만 2등, 3등 상은

굉장히 많이 탔어요. 반면에 B라는 학생은요. 영어경시대회만 1등을 했습니다. 말하기대회, 작문대회

나가는 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지금 고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입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을 판단할 때 누가 더 영어 역량이 높다고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A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1학년 경우 봅시다. 몇 개만 된다고요? 하나만 갑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만 돼요?

나머지가 사라지고 영어말하기가 좋은 거 같아.
영어말하기 2위 선택해야지. 이 학생은 영어경시대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뭐밖에 없어요?

영어말하기대회 2위랑 영어경시대회 1위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물론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지만

어느 게 더 높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자 입장에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대학이 호락호락한 존재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과연? 이거와 이거를 비교할까요, 동일
선상에? 안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수상의 의미가

대학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학종에서 수상은 굉장히 위력이 셧습니다. 엄청 셧어요.

물론 수상이 많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판단할 때 수상경력이 많은

친구들은, 특히 전공과 관련성이 많은 친구들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몇 개만

갑니까? 하나만 가잖아요. 이전까지 이 학생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하려면 어디에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쓸 수밖에
없는데 학생부에 없는 내용이 자기소개에 들어가면

대학이 그거 쓰려고 합니까? 안 하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학생부가 기본적인 자료니까, 그래서 학생부에 없는
자료를 자기소개서에 쓰면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써봐요. 대학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상의 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이 수상의 위력이 지금 고2, 3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낮게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상을
안 합니까? 교내 참가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합격선에서는 이 조그마한 포인트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상이 아예 없는 거랑

수상이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어떤 수상을
할 건지 고민이 생겨요. 자, 학생의 판단에 따라서

1등상 대신에 2등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는 건 대학에서는 1등상은 안 보이잖아요.

2등만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이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학생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대학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려하고요. 학교 조사
다해요. 이 정도 상을 탄 아이라면 다른 역량을 봤을 때

다른 상도 탔을 거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상에 대한 평가

역량을 낮춥니다. 낮출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요. 하지만
타는 건 좋습니다.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는 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수상의 등수는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줄 거 같지는 않아요, 대학에서는요.

물론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대학
입장이라면 수상에 대한 포인트 굉장히 낮게 매길

겁니다, 이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상경력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대학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수상을
아예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수상을 포인트를 얼마큼

줄 것인가. 이걸 학업역량에 넣을 것인가, 전공적합성에
넣을 것인가, 아예 그냥 동아리처럼 확 낮출 것인가.

굉장히 지금 대학들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논문과 R&E활동이에요. 거의 뭐 이제

융탄폭격을 맞은 녀석 중의 하나죠. 사교육의
원흉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일단 똑같아요. 모든 항목

기재 금지입니다. 이전에는 과제탐구 교과라든가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썼었어요. 로봇의 실생활 활용 방안

연구 5명이서 하고요. 시간. 이거까지는 고2와 고3에
적합니다. 그렇죠? 과제탐구 교과라든가 아니면

동아리에서는 쓸 수가 있었어요, 소논문을요. 그런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모든
소논문 활동 자체가 기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논문 말고 탐구보고서라고 쓰면 되잖아?

그럴 줄 알고 교육부가 이것까지 명시해놨어요,
기재요령에. 탐구보고서 등의 명칭도 불허한다.

예전에 대회 할 때 많이 써먹었거든요. 대회가 기재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대회를 안 쓰고요. 활동으로 바뀌서

다 썼어요. 말장난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볼 때는 다 명칭으로 보거든요, 감사할 때.

그리고 이번에 아예 탐구보고서라는 용어도 안 된다고 명칭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구활동 자체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지는 않아요. 탐구활동은 2015 개정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탐구보고서라든가 소논문이라는 용어는 못 씁니다. 대신에 보고서는 가능하죠. 왜? 보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교과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고서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니까? 과제라고 수업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발표 활동.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 활동,

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탐구활동을 나타내는 활동들이 웬만한 학생들 교과세특에는

최소 1개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스펙을 나타내는 소논문 활동 그 자체보다는요. 능동적 탐구활동을 교과 전반에 걸쳐,

특히 전공과목에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동아리 볼까요?

자율동아리 이것도 좀 굉장히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율동아리가

기본 동아리와는 다르게 선생님들도 관찰을 못 하잖아요. 정규동아리는 선생님과 함께 정해진 시간 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율동아리 어떻습니까? 학생 스스로가 만들고,

학생 스스로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할 때 선생님이 같이 가서 보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선생님들이 한가하게 애들 자율동아리에 가서 같이 활동할 정도로 한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많이 해서 이거를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을 하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기재해주는 거로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사가 관찰해서 쓴 게 아니죠. 거의 준 셀프 동아리가 됩니다. 셀프 학생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자율동아리 취지가 뭐니까? 학교에서

정규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자기네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든 동아리입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타협을 본 게 뭐냐면요. 학년당 1개만 허용합니다. 지금 2, 3학년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정규동아리 1개 하고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자율동아리 1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걸립니다. 기재가요.
2, 3학년은 정규동아리만큼 쓸 수도 있고요.

정규동아리보다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학년부터
자율동아리는요. 30자 이내의, 30자면 굉장히 적어요.

2문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더 큰 게 뭐냐면요.
동아리에 대한 설명만 기재하도록 나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왜 쓰라고 합니까? 학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학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설명, 학교 행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학생부 정말 극혐합니다, 대학에서는요.

왜?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라 학생의 활동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학교 자랑하고 동아리 자랑하는 거로

바뀌니까 그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는 그렇게 쓰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동아리 위상이 수상과 더불어 대폭 떨어집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가 자율동아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생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써야 되죠.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율동아리에 대한
내용은 학생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학생에 대한

활동을 쓰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막 풀어나갑니다.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대학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율동아리에 대한 평가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낮추겠죠.
그렇죠? 반면에 정규동아리에 대한 위상은요.

올라가겠죠. 반비례입니다.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잖아요. 이전에는 정규동아리랑 자율동아리랑,

물론 정규동아리가 조금 더 높기는 하겠지만 이 학생의
활동에 따라서 자율동아리가 높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어떠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활동이 들어가는
정규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규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자율동아리인데
자율동아리에 자기의 꿈과 어떤 활동 내용이 적혀 있지

못하니까 반감됩니다. 활동을 하는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대학이 판단했을 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의 요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율동아리 평가 위상이

떨어져요. 하지만 수상이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특히 자율동아리는

학종에서 이제 필수코스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재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할 때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자율동아리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한테는 학생부의 비중이 줄었을 뿐이지 학생들이 하는 활동의 비중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동이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율동아리는 기재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기재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자율동아리에서 한 활동을 수업 시간에 단원과 연계해서 발표하면 되죠.

그러면 비록 이게 자율동아리와 연계됐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활동 자체가

학생부에 기재가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 쓰면 됩니까?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아지죠. 진정성이 있잖아요. 왜? 이 활동 자체를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당연히 자율동아리에 대한 평가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살리고 싶은 친구는 뭘 하라고요? 이것을 여기서 한 활동을요. 반드시 수업 시간의 활동과 연계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자율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아까워요. 투자대비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수상과 비슷해요.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수상이든 자율동아리든 취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정쩡하게 바뀌었어요. 아예 뺏어야죠. 수상기록

같은 거 아예 빼는 게 나아요. 빼버리면 아예 학생들이 어때요? 교내대회에서 쓰는 열정을요. 좀 다른 데다

웁기겠죠. 그런데 막상 수상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상은 했는데 1개만 써야 되니까

나머지 상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진짜 소위 얘기하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뭐니까?

열심히 한 활동 자체가 대학에 안 가버리니까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율동아리도 똑같아요. 열심히 진짜

정규동아리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도 있거든요, 자율동아리 활동을요. 이 내용이 학생부에 못 적혀요.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것을 연계시켜야 됩니다. 자, 방과후활동입니다.

이것도 문제죠. 자, 기재 금지요. 죄다 기재 금지, 죄다 축소입니다. 예전에는 보충수업 있잖아요.

이렇게 적혔어요. 이게 교과세특에 적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1학년부터는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고등학생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부에 적히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활동 수업을 듣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부에 적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적히죠? 거의 올해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최소 30% 정도 작년 대비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학생부에 안 적히니까.

진짜 올해부터 방과후수업 듣는 1학년 친구들은요. 정말로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성적을

올리고자 자기의 공부를 하고자 학생부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런데 축소될 수밖에 없죠. 진짜 방과후학교는 정말로 수능 대비, 교과 대비

활동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좀 웃겨요. 방과후활동 자체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학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거의 다 공부 위주였어요.

수능을 하기 위해서 국어 문제풀이, 수학 문제풀이, 영어 문제풀이, 과학 문제풀이, 사회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런데 학종이 좀 커지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과제탐구, 수업 시간에

못 하는 과제탐구, 독서토론, 원서읽기, 체육활동, 음악 그리기, 음악감상 토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음악 연주하기. 왜? 이런 걸 해야지 그런 게 적히니까 친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적히죠.

안 적히면 방과후활동으로 음악연구 할까요? 과제탐구 할까요? 원서읽기 할까요? 토론할까요? 안 하죠.

거의 이런 활동은 거의 다 폐강됐습니다, 웬만한 학교에서는요. 반작용이 커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예 기재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있죠.

순수한 교과활동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거의 공부 위주로, 대신 학원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좀 공부 실력을 키우고 싶은 친구들은요. 방과후활동을 이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진지해졌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글자수 축소예요. 기재 금지와

기재 글자수,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한계 설정 여기와 더불어 창체 활동 위주로 글자수가 대폭 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걸 1, 2, 3학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전까지는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 그리고 종합의견 1,000자 이거였는데 어떻게 바뀐 지 아세요?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2, 3학년은

똑같이 500자 이거 살아남았어요. 2, 3학년은요. 진로활동 700자, 종합의견 500자 그렇죠?

1, 2, 3학년 모두 다 자율활동 축소, 동아리는 그대로, 진로활동 축소, 종합의견 축소입니다. 1학년은

여기에 더불어 봉사활동 아예 기재 금지.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800자가 학생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편하죠. 선생님들은 편해졌어요. 1,800자 안 써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대학들이 싫어합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대학들은 평가할 요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정교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점점

학종의 평가 요소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굉장히 축소된다는 거는 이 얘기죠. 학생부 평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뜰이나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격차가 컸잖아요. 그렇죠? 하는 학생의 한정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과세특에

기재가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글자수 줄고요. 차별화를 뒀던 활동이 차별을 둘 수 없게 바뀌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살아남은, 특히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는

교과(세특) 힘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숫자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학생부에 대한 숫자가 뭐죠? 성적이죠. 내신이
학생부종합전형, 물론 티 나게 높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내신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평가 항목이

축소되니까. 수상, 수상이 뭐니까? 수상을 통해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수상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업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녀석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내신과 교과세특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2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개인이 더더욱 드러나는 활동을요.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판은 다 깔아줬어요.

그토록 욕했던, 학교가 안 바뀌어요. 선생님 수업이
안 바뀌어요라고 얘기했었던 그동안 배경과 환경을 탓했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물론 여전히 안 그런 선생님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2,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생각할 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독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친구들과 협업 활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자기를 어필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내신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수능공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보너스로 가볼까요? 여기와 더불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까지 축소가 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2, 3학년은요. 이렇게

감니다. 학업역량 1,000자 그렇죠? 교내활동
500자, 교외활동도 OK, 나눔배려활동 1,000자,

자율활동 1,000자~1,500자 이게 현재의 자소서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거는요. 1번 항목 지원동기

추가해서 기존의 1, 2번 항목. 학업역량과 교내활동
3개, 그리고 여기다가 명시했습니다. 교외활동 안 돼라고

했어요. 무조건 교내활동만 됩니다. 1,500자. 1,000자
날아갔죠. 두 번째 인성인데 여기에 뭐가 됐어요?

교내활동 포함해서 본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항목 쓰래요.
거의 인성이죠. 800자로 줍니다. 200자 날아갔습니다.

자, 자율항목. 지원동기라든가, 지원동기 1번에서
물어보잖아요. 지원동기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학업역량, 그리고 노력한 과정, 노력, 독서 같은 거

물어보겠죠. 예전에는 1,000자~1,500자였습니다.

명시했습니다. 800자.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갔어요. 학생부도 줄고, 자소서도 줄었습니다.

1학년 평가할 수 있는 가짓수가 줄었어요.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숫자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성평가인 교과세특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부 기재 대상과 분량이 삭제 및
축소됐습니다. 매번 강조하죠.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 입장에서 평가의 요소가 거의
1/3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학생부 평가하기 정말 힘들습니다. 축소된
거에다가 학교들의 활동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학생부가 점점 좋아집니다.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당연히 교과세특

강화되고 있으니까 숫자의 힘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니까? 진로선택이 추가가 되잖아요. 진로선택은 숫자로
표현이 안 되죠. 등급이 안 나오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1학년 때 성적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1학년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다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하는 일반선택교과.
굉장히 내신 비중 커질 확률이 높아요.

내신과 수행평가 둘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필고사, 수행평가 내신의 항목이죠.

여기에 수업, 교과세특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바뀐

2019 학생부 기재 개정안 안에서 여러분들의
최적의 학생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교육 환경은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안 바뀌고, 수업이 안 바뀌고, 학교가
안 바뀌니까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학교 바뀔 수밖에 없죠.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해야 되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학생들 판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착하기까지 해야 돼요. 힘들죠? 만능을 요구하는

학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내신다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버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다 이게 나중에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지금 힘들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난 성장을 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5강 2019 학생부 개정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